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100세 시대

심 윤 경
소설가

어느 선거일에, 나는 투표소 앞 긴 줄 안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줄은 길었고, 코로나의 끝물이라서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남들처럼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 지루함을 이기며 서있었는데, 문득 투표 진행을 돕는 참관인이 도움을 청했다.

"107세 유권자가 오셨습니다. 차례를 양보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나 아닌 누구라도 이런 양보를 거절할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기꺼움을 최대한 드러내보이며,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러 오신 107세 유권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도착한 어르신을 보고 나는 내가 뻔하고 고루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그분이 들것이나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았고 지팡이조차 짚지 않았다. 다소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앞선 안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80대쯤 되셨으려니 짐작했을 것이다. 아니 아무런 짐작조차 하지 않고 그분에게 어떤 관심이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분은 107이라는 깜짝 놀랄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1년 6월,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는 87이라는 숫자가 지금의 107처럼 들렸다. 107세 유권자와 나의 할머니를 겹쳐 떠올리면서 나는 그 사이 사람의 수명과 노년의 활력수명이 함께 길어진 것을 실감했다. 누구나 칭송할만큼 장수하고 세상을 떠나신 나의 할머니는 107세 유권자처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운신에 어려움이 없었다.

"오금이 붙으면 안뒤야."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바지런히 움직였다. 오금이 붙지 않기 위해서 할머니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왔고 쑤시는 어깨를 풀기 위해 관절을 돌렸다. 지금 생각하니 손녀에게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셔도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움적거리면 뒤야."

할머니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법이 없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을 한나절 이상 길게 가져가는 일도 없었다. 한숨 한 번 쉬고 나서 몸을 움적거리는 것으로 할머니는 노년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모두 이겨냈다. 씩씩하게 약수터에 오르고 쑤시는 어깨를 혼자서 풀던 할머니는 단 하루도 몸져 눕지 않고 어느 날 잠자듯 세상을 떠나셨다. 조촐하게 욕심이 없던 할머니가 거두신 생의 마지막 승리는 그 고요하고 갑작스러운 떠나심이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던 어느 유월의 맑은 날에, 나와 부모님, 그리고 세분 고모들은 할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갔다. 사랑이 많으셨던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 할 수 있다. 산소로 향하는 야트막한 오솔길을 걸으며 나는 마음 속으로 덧셈을 해보았다. 큰고모 96세, 둘째고모 93세, 아버지 89세, 막내고모 84세, 엄마 82세. 할머니의 직계자손 4남매의 나이를 더하면 362, 엄마까지 더하면 444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조용히 내 앞을 흘러가고 있었다. 큰고모가 가벼운 지팡이를 짚었을 뿐 모두 씩씩하게 잘 걸었다. 몇 년전 둘째고모는 허리를 다치며 보행이 어려워졌다. 고모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솔직히 속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둘째고모는 끝내 회복해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언덕길을 올랐다.

간이 의자 두 개를 챙겼는데 고모들이 계시니 아버지께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90세 이하는 모두 젊은이에 해당할 뿐이었다. 그늘에서 쉬시라고 해도 고모들은 좀 움직이는게 좋겠다며 꼬챙이를 들고 산소 주변의 잡초를 뽑았다. 이제는 당신보다 연세가 높아진 딸아들들에게, 땅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이셨을지도 모른다. 오금이 붙으면 안뒤야, 움적거리면 뒤야. 그분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다. 각자에게 주어진 노년의 시간이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해야할 일은 그것으로 수렴될 것이다. 오금이 붙지 않게 바지런히 움직이고, 속상한 일들은 몸을 움적거려 날려보내면 된다.

종교칼럼

가진 건 열정 밖에 없는데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스님, 알바도 여럿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요번에 창업 투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어요. 돈이 없으니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나의 대학생 친구가 맥 빠진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열정에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조화 열정으로 특정한 활동에 열정을 가지면서도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는 상태이며, 둘째, 강박 열정은 오로지 특정 활동의 열정을 통해서만 쾌락,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 등을 추구하려는 상태이다. 만약 이 활동이 무너지면 상실감과 절망이 몰려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강박 열정이 열정의 민낯이라면, 조화 열정은 어떻게든 열정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희망 사항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나의 대학생 친구는 강박 열정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 봉착해 있는 셈이다. 강박 열정을 조화 열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그게 과연 손쉬운 일일까?

그래도 이 친구는 깨질 열정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꽤 오래전 일이다. 이십대 중반의 젊은 여성과 차담을 한 적 있다. 지금 일이 그렇게 싫지 않고 재미도 있다고 했다. 본인 나이에 걸맞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보고 싶다고 했다.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그 뭔가가 뭔지 몰라서 헤메고 있었다.

이 젊은 여성과 대화하면서, 나는 이 여성의 관념적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열정이 사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인데 어찌 된 셈인지 이 여성의 열정은 머릿속에 기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학습되고 주입된 열정이었다. "열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법문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에 법문한 동영상을 찾아 보곤 한다. 그럴 때마다 피부에 와닿는 사실이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말도 빠르고 하이톤이었다. 반면 그 이후로는 말도 느리고 차분하다. 아무래도 황천길을 미리 한번 예행 연습 삼아 다녀온 뒤로, 한풀 꺾인 모양이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 지금껏 생각했었다. 하지만 열의에 차서 법문하던 불과 몇 년 전 내 모습을 보노라면 '저게 열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열정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내 모습이 낯설기까지 하다. 잠시나마 나도 모르는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기라도 했단 말인가?

열정의 여러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몰락한 열정, 알맹이라곤 없는 보여 주기식의 열정,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열정…. 열정을 조화롭게 다스리기도 힘들지만,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도 없는 열정을 찾아 헤메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도 언젠가는 식게 되어 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을 수 없듯,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모든 재는 뜨겁게 불타오르던 빛나던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열정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열정의 운명적인 몰락 역시 시작된다.

청춘은 열정을 먹고 산다. 그래서 나의 대학생 친구는 자신의 열정에 끌려 다니다가 그만 기운이 소진되고 말았다. 뜨거운 열정에 환호하려면, 차갑게 식은 열정의 냉랭함 역시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젊은 여성은 마치 백화점에서 신상품 고르듯 열정을 고른다. 그러나 열정은 몇 푼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이제 60대에 들어선 나는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의 뜨거움과 열정이 지나간 자리의 황량함을 모두 겪어 보았다. 그래서 차갑게 식은 열정의 스산함이 싫어서 다시 또 뭔가에 자신을 내던지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산불이 지나간 잿더미에서도 다시 싹은 트는 법. 열정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도 또다시 새로운 열정은 피어 오른다. 설령 뜨겁게 다가오는 열정이 언젠가 휑하고 황량한 바람만 남기고 떠날지라도, 이 또한 소중한 인연이다.

열정을 조화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마치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듯 적당한 세기로 열정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열정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화려함과 치열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줌 재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허망함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열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열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말했다. "당신의 열정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나는 말한다. "열정을 사랑하라. 그러면 열정은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기 고

광주시의회 1년, 용기 있는 초선 의원들

정 무 창
광주시의회 의장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9대 광주시의회는 초선 비율이 70%에 이르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출범했다.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에 이견이 많지 않은 듯하다. 지난 1년은 시의회가 가야 할 항로를 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이륙하는 시기였다. 2년 차부터는 순항 고도에 접어들어 '광주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

1년 차 시의회 평가는 '초선 의원'에 대한 평가와 다름없다. '초선'들은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주도했다. '초선'들의 양보 덕분에 출범 초기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소위 '주류·비주류'가 형성되지 않았다. 초선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사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치적으로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 초선들의 합리성과 열정이 시의회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 1년 광주시의회는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날카로운 첫 시정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봐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견제와 감시에 오히려 엄격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광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공론화가 부족한 의제들은 과감히 제동을 걸며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2038 아시안게임' 연구 용역 부실을 밝혀내 시정토록 했고, 최종 용역이 끝나지 않은 채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시민 여론 조사를 통해 '수소 트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둘째,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할 말은 하는 의회'로 변화했다.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초선' 5명이 5·18에 대한 릴레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80년 5월을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정치인 누구도 '5월 문제'에 쓴소리를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나섰다. 성역처럼 굳어 있는 '5월'을 정면으로 다뤘다. 5월을 상속받아야 할 초선들의 거침없는 쓴소리에 시민들이 화답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초선이 먼저 나섰다.

셋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시의회가 적극 나섰다.

한때 시청·의회 간 열정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조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시의회가 손을 내밀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입법 실적을 냈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1위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넷째,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꿔 가고 있다. 이른 아침 학습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 모임, 도시계획 연구 모임 등 다섯 개의 의정 연구 모임을 꾸준히 갖고 있다. 1년 동안 무려 56회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1회씩 개최한 셈이다. 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초청 강연, 월례 조회 미니 특강,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연수 활동도 활발하다. 학습하고 연구하는 문화도 젊은 초선 의원들이 주도했다.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시민과 공무원의 익명 제보 접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다. 일부 의원의 청렴 문제도 아쉬움이 크다. 시 집행부와 '밀도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했다.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 높여 운다는 유유녹명(呦呦鹿鳴)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자"고 말씀드렸다. 지난 1년 광주시의회를 돌아보며, 새해 첫날 첫 마음을 다시 새긴다. 초선들의 거침없는 질주를 위하여, 재선들이여 분발하자! "유유(呦呦)!"

社 說

시작부터 폭우, 심상찮은 장마 대비 강화해야

광주·전남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뛰어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시작부터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광주·전남에 300㎜ 가량의 폭우로 1명이 실종되고 농산물과 시설물 침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28일 광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4.1㎜, 44.9㎜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관측 이래 광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중 호우로 기록됐던 2018년 6월 29일 시간당 44.3㎜보다 많은 양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치(극값) 1, 2위 기록도 새롭게 경신했다. 지난 27일 전남 광양에서도 2020년 6월 20일 31.5㎜보다 많은 49.6㎜의 거센 비가 내리면서 불과 3년 만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여름 집중 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 상황별·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당 50㎜조차 감당하기 힘든 기존 대책만으로는 폭우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빈도가 많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장마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폭우 때마다 범람하는 영산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최대 20년 빈도(299.3㎜, 20년에 한번 내릴 가능성)로 설계된 하수도 용량을 500㎜ 이상의 빈도로 확장해야 하지만,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확보가 걸림돌이다.

풍수해 등 재난 대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국지성 호우로 상습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용량 확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하천준설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산과 인력 확충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기피 아닌 경쟁' 광주 소각장 친환경 모델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위한 경쟁이 뜨겁다. 엊그제 마감된 광주시의 친환경 자원 회수(소각) 시설 입지 공모 결과 서구 두 곳, 동·남·북·광산구 한 곳씩 모두 여섯 곳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단체·법인 자격으로 신청했고, 나머지 네 곳은 개인 자격이다. 후보지는 부지 면적 6만 600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은 자치구·개인·문중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소각장 유치 경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입지 선정 때면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는 여가 공간과 편의 시설을 함께 조성키로 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덕분이다. 광주시는 소각장 건립 주변 지역에 1000억 원대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600억~800억 원 규모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숙원 사업 추진비 및 자치구 교부금 500억 원 지원이 그것이다.

광주시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의 생활 쓰레기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후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체 소각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생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갈등이 아닌 선의의 경쟁 구도 속에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 만큼 오염 물질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활용은 극대화해 환경·주민 친화형으로 건립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하에 소각시설, 지상에는 물놀이장·생태공원, 바로 옆에는 복합쇼핑몰을 함께 갖춘 '하남 유니온파크' 등 국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삼일천하

러시아 용병 단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 24일(현지시각) 휘하 부대를 이끌고 러시아 군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수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란의 수괴는 물론 러시아의 철권 통치자 푸틴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의 '1일 반란'처럼 아주 짧은 순간의 쿠데타나 전쟁을 일컫는 말 중에 '삼일천하'라는 표현이 있다. 반란 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단기간에 권력을 잃고 진압되거나, 전쟁에서 한쪽이 잠시 우세를 점하다 패한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3일짜리' 천하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짧은 기간이나 시간에 중점을 둔 조어이다.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삼일천하는 공교롭게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된 '8월 쿠데타'가 그것이다. 1991년 8월 19일 군부와 KGB를 포함한 소련 공산당 보수파들이 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연금시키고 개혁 정책을 중단시키려 했다. 이들은 당시 부통령이던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었다. 옐친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전 소련 국민들에게 파업할 것을 촉구하며 서방의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반란 병력이 모스크바에서 철수함에 따라 쿠데타는 사흘 만에 막을 내리고 만다.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12월 6일 낮까지로 진짜 3일짜리였으며, 굳이 시간으로 따진다면 정확히는 46시간이었다. 일본에서 부르는 삼일천하는 1582년 음력 6월 2일 아케치 미츠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혼노지의 변으로 죽였다가, 1582년 음력 6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에게 패사한 경우이다. 역사가에 따라 9~11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에선 대개 이를 삼일천하라고 부른다.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푸틴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